은행

Sector Issue Brief 2026. 03. 30

2월 가중평균금리 동향: 1Q NIM 상승과 이자이익 증가

Check Point

- 잔액 예대금리차 4 개월째 반등
-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 상승추세
- '26.1Q NIM 상승으로 이자이익 증가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대출금리 상승으로 예대금리차 확대 추세. 잔액 NIS 4개월째 반등

▶ 2월 예금은행 신규 예대금리차는 1.43%p(총대출-저축성수신)로 1월 대비 3bp 하락. 연말 연초 큰 폭의 저축성 수신금리 변동 영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4분기 평균 1.36%p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태. 특히 신규 대출금리가 지난해 10월 4.02%를 기록한 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월에는 4.26%까지 상승

▶ 은행수지에 보다 유의미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총대출-총수신)의 경우 2월 2.26%로 전월 대비 2bp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잔액 예대금리차 상승 역시 대출금리 상승에 기인하며 총수신금리는 지난해 4분기 이후 2.0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음

▶ 2월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4.45%로 1월 중 15bp 급등한 이후 5bp 반락했으나 지난 4분기 대비로는 여전히 15bp가량 높은 수준. 특히 가계 주담대 금리는 시장금리 상승과 규제기조 지속 영향으로 4.32%까지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2월에는 기업대출 금리 또한 5bp 상승하면서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음

▶ 신규 저축성수신 금리의 경우 2월 중 2.83%로 1월 대비 5bp 반등했으나 25년말(11~12월) 평균과 유사한 수준. 시장금리 상승이 수신금리에도 반영되고 있으나 가계대출 억제와 RWA 관리기조 영향으로 조달부담은 크지 않은 상태로 파악됨.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증시로의 머니무브에 따른 예금이탈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 현상 또한 나타나지 않고 있음

'26.1Q NIM 반등과 이자이익 증가 예상. 시장금리 상승 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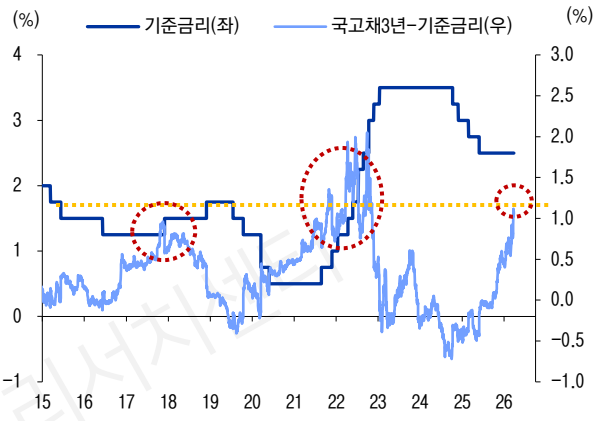
▶ 1~2월 평균 잔액 예대금리차는 지난 4분기 대비 5bp 상승했으며, 주요 시중 은행의 2월 누적 순이자마진(NIM)은 평균 1bp 내외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 3월 들어 시장금리 상승 폭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권 1Q NIM은 1.5bp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며, 대출성장률 또한 평균 1.5% 내외는 기록할 것으로 보여 1분기 이자이익 증가가 예상됨

▶ 3월말 현재 국고채3년 금리는 3.58%까지 상승하며 기준금리 대비 100bp 이상 스프레드가 확대됨.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물가)가 상승하고, 대내적으로는 신임 한은총재가 매파성향으로 분류되는 등 향후에도 금리의 상방압력이 높아진 상태. 이는 대출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

그림1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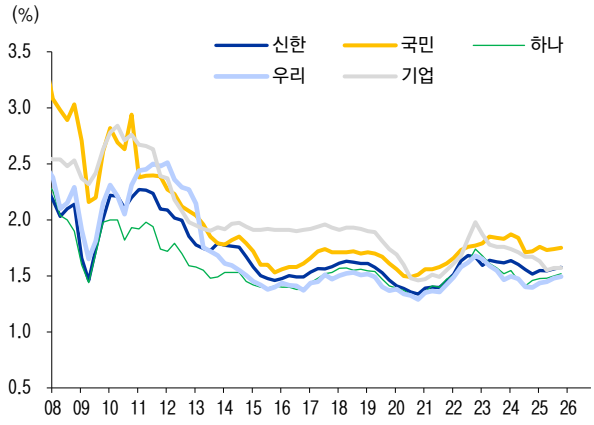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고채 3 년 금리와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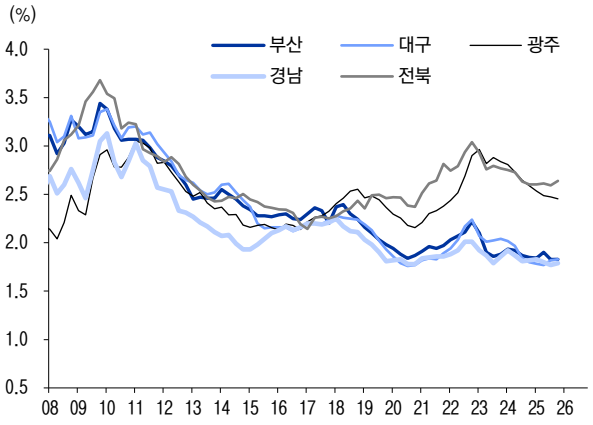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시중은행 NI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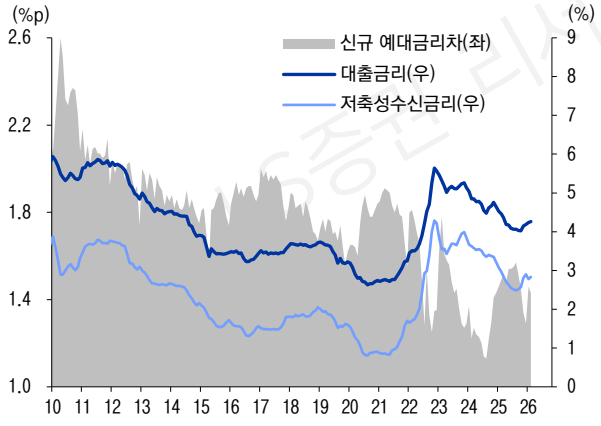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지방은행 NI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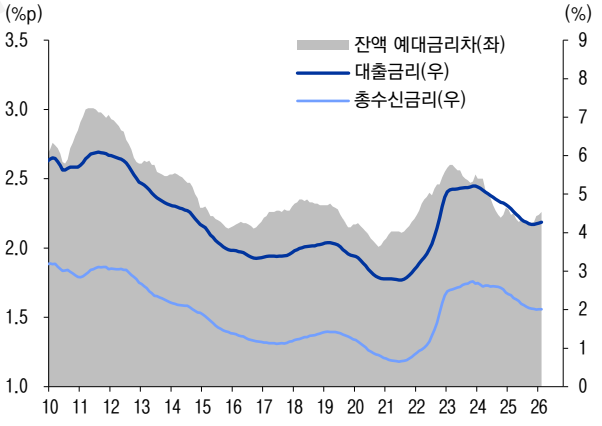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신규 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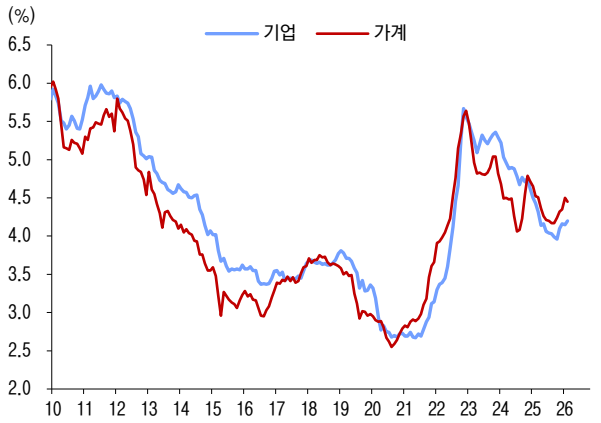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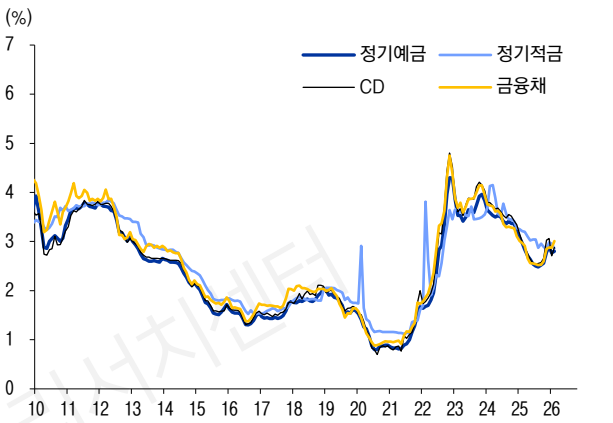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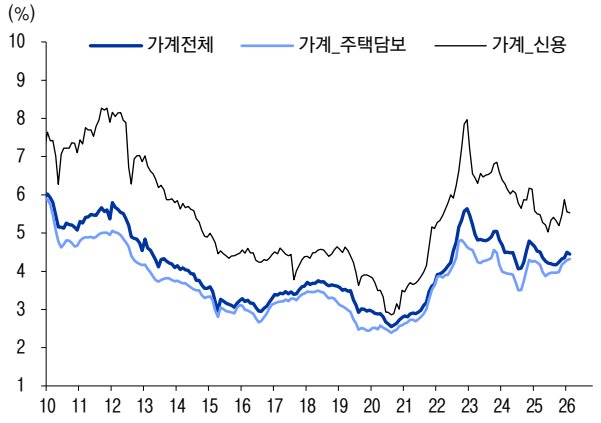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부문별 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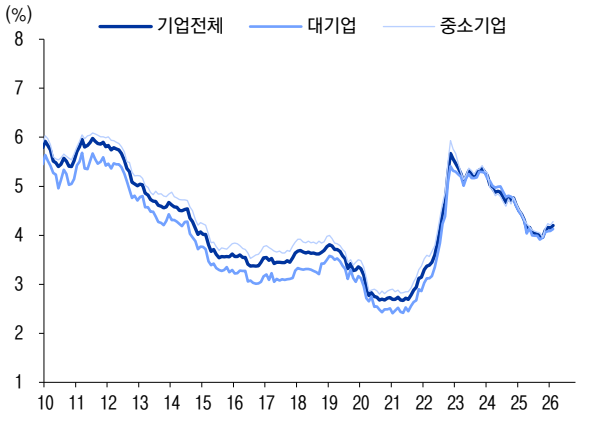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가계대출 부문별 금리(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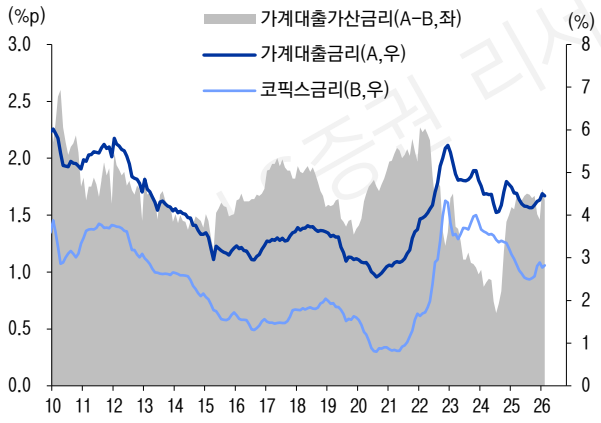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기업대출 부문별 금리(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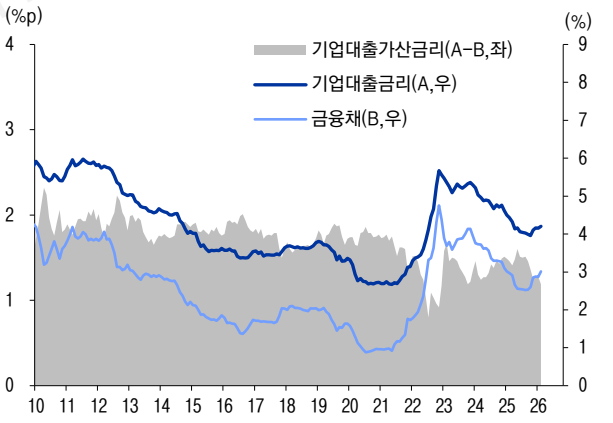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가계대출 가산금리(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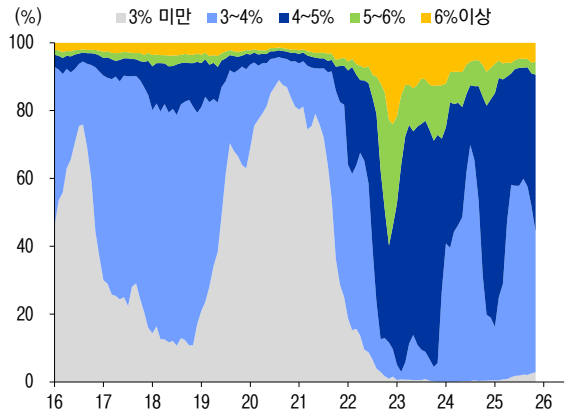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기업대출 가산금리(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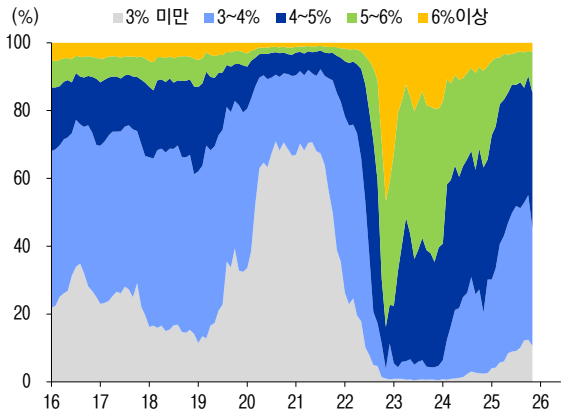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신규취급액)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정기예금 금리별 비중(신규취급액)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8.7% 11.3%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1. 01 ~ 2025.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